

2024년 국제회의 개최실적 조사

2025. 07.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2024년 국제회의 개최실적 조사』의
결과로써 향후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한국관광공사 귀하

본 보고서를 『2024년 국제회의 개최실적 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07월

(주)한국데이터연구소

목 차

2024년 국제회의 개최실적 조사

I 조사 개요 03

1. 조사 배경 및 목적 05
2. 조사 주기 및 기간 05
3. 조사 기관 05
4. 조사 대상 및 방법 06
5. 조사 항목 06
6. 국제회의 인정 기준 07

II UIA 기준 개최 현황 09

1. 세계 개최 현황 1
2. 아시아 개최 현황 15
3. 한국 개최 현황 17

III ICCA 기준 개최 현황 19

1. 세계 개최 현황 2
2. 아시아 개최 현황 28
3. 한국 개최 현황 32

IV 결론 및 시사점 35

1. 결과 요약 37
2. 증감 분석 38

I

조사 개요

2024년 국제회의 개최실적 조사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주기 및 기간
3. 조사 기관
4. 조사 대상 및 방법
5. 조사 항목
6. 국제회의 인정 기준

제 I 장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국제협회연합(UIA) 및 국제컨벤션협회(ICCA)는 매년 5월-6월 사이에 전 세계 국가 및 도시를 대상으로 국제회의 개최실적을 집계하여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이 순위는 각 국가의 국제회의 산업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며, 세계적인 비교 대상이 됨
- 한국 역시 해당 순위 발표를 통해 국제회의 개최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그리고 잠재 유치 수요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은 매년 국제회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UIA 및 ICCA에 보고하고 있음
- 본 조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UIA 및 ICCA에 제출하여 향후 국제회의 개최지로서의 인지도 제고 및 관광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국제회의 개최 시설, UIA 및 ICCA에 가입된 국제기구, 국제적 학/협회 등 주최기관, 국제회의 기획업(PCO), 전시 기획업(PEO) 등 다각도의 실적 수집을 통해 국가 차원의 국제회의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국제회의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전략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주기 및 기간

- 조사 주기 : 1년
- 조사 대상 기간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3. 조사 기관

- 조사 주관 기관 : 한국관광공사
- 조사 실사 기관 : (주)한국데이터연구소

4 조사 대상 및 방법

가. 조사 대상

- 시설업 : 전문회의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1,030개
- 주최기관 : 학/협회, 대학교,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86,627개
- 기획업 : 국제회의기획업(PCO), 전시기획업(PEO) 등 1,622개
- 기타 : 미팅테크놀로지 운용 사업체, 대학교, 국내 학/협회, 지방자치단체, 컨벤션뷰로 등 3,273개

나. 조사 방법

- 방문면접, 전화, 이메일, fax 등 조사표를 활용한 Multi 조사방법

5. 조사 항목

- 2024년 국제회의 개최실적 조사 항목은 <표 1-1>과 같이 5개 부문으로 구성됨

<표 1-1> 조사 항목

구분	내용
행사 개요	• 행사명, 시작/종료일, 개최 도시, 개최 시설, 행사 형태, 행사 주제, 행사 유형
참가 규모	• 전체 및 외국인 참가자 수
국제기구 개요	• 관련 국제기구명 및 홈페이지
주최 기관	• 국내 주최기관, 해외 주최기관, UIA 코드, ICCA 코드
기타	• 순회 정보, 행사 홈페이지

6. 국제회의의 인정 기준

가. 국제협회연합(UIA)

- 국제협회연합(UIA :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은 1907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매년 6월 중에 전 세계 국가/도시별 국제회의의 개최실적을 집계하여 순위를 발표하고 있고, 인정 기준은 <표 1-2>와 같음

<표 1-2> 국제협회연합(UIA) 개요

구분	내용
명칭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웹사이트	•www.uia.org
기관 성격	•비영리기구 ¹⁾
설립연도/본부	•1907년, 벨기에 브뤼셀
회원사 현황	•세계 약 68개(한국회원 공사 포함 8개) 기관
가입 국제기구 현황	•78,254개 기관 ²⁾
설립목적	•국제기관 및 협회 간 정보교류와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
주요사업	•전 세계 국제회의의 실적 집계 및 통계보고서 발간 •세계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 자료 수집 및 발간 •국제협회의 법적 신분 향상을 위한 진흥 활동 •연례총회 개최
기준	•YearBook에 나열된 하나 이상의 국제 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든 회의 또는 아직 연감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등재될 자격이 있는 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 다만, YearBook에 'Autonomous conference series' 카테고리를 생성하여 공식적인 주최 협회 없이도 진행되는 회의도 개최실적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면 포함

1) UN의 ECOSOC(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협의 지위 부여 기관

2) 2024년 07월 14일 기준

나. 국제컨벤션협회(ICCA)

- 국제컨벤션협회(ICCA :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는 1963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매년 5월 중에 전 세계 국가/도시별 국제회의 개최실적을 집계 및 순위를 발표하고 있고, 인정 기준은 <표 1-3>과 같음

<표 1-3> 국제컨벤션협회(ICCA) 개요

구분	내용
명칭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웹사이트	•www.iccaworld.com
기관 성격	•협회
설립연도/본부	•196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회원사 현황	•990개(한국회원 공사 포함 30개) 기관
가입 국제기구 현황	•13,301개 기관 ³⁾
설립목적	•회원사간 정보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회의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 세계적인 주요회의 기록관리 목적으로 운영
주요사업	•회원사 간 비즈니스 기회 및 정보 교류 확대 •회원사 대상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세계적인 주요회의 정보 기록관리, 정기간행물 발간 •연례총회 개최
기준	•협회 주최 •정기적으로 개최 •참가자 50명 이상 유치 •3개국 이상을 순회하는 회의 •온라인 행사 제외

3) 2024년 07월 14일 기준

II

UIA 기준 개최 현황

2024년 국제회의 개최실적 조사

1. 세계 개최 현황
2. 아시아 개최 현황
3. 한국 개최 현황

제 II 장

UIA 기준 개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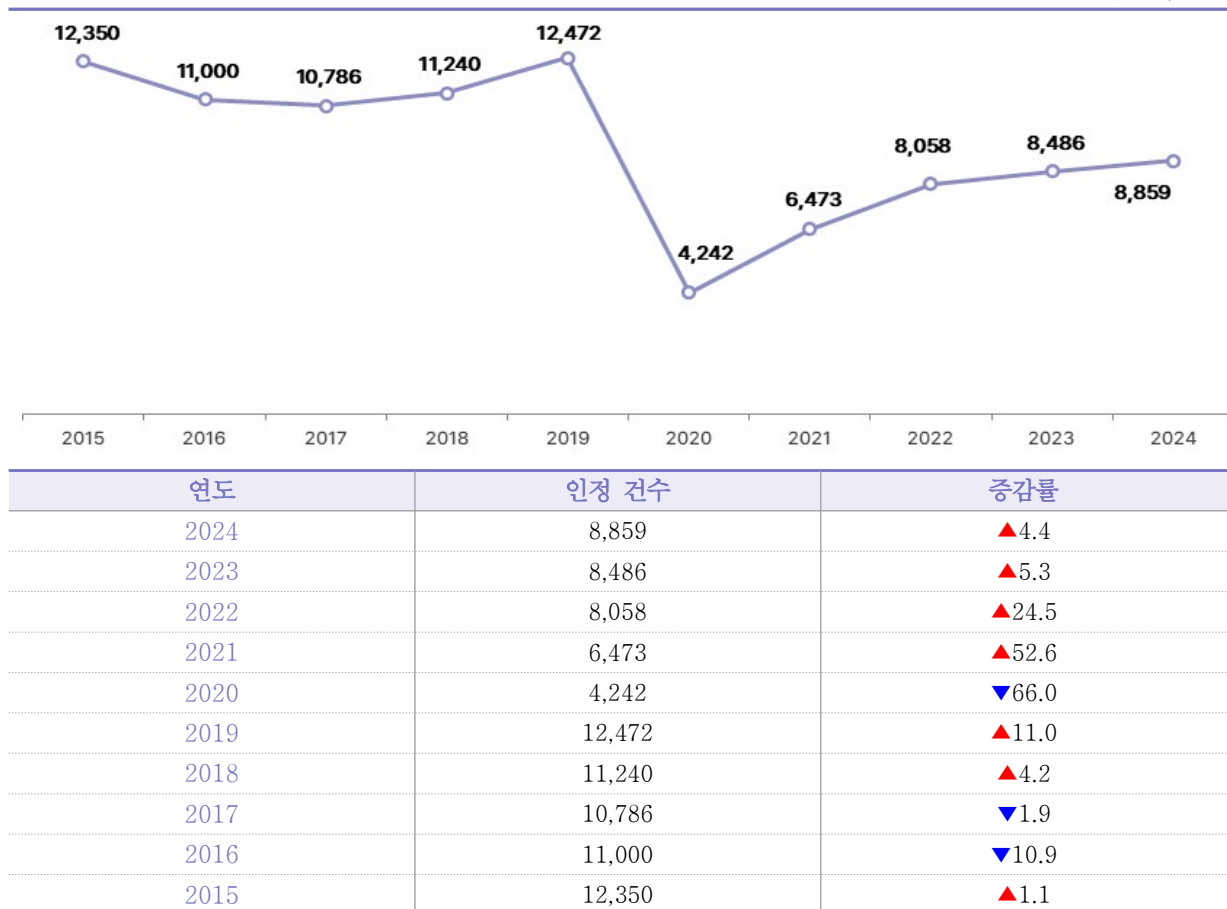
1. 세계 개최 현황

가. 전체⁴⁾

- 2024년 전 세계 국제회의 인정 건수는 8,859건으로 전년 대비 373건(▲4.4%) 증가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2,472건) 대비 2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UIA 인정 국제회의 수요는 약 71% 가량 회복된 것으로 해석

<표 2-1> 전체 현황

[단위 : 건, %]



2011-2022년 A+B Type 기준이고, 2023-2024년은 전체 기준임

4) 본 보고서에 기재된 국가별 인정 건수는 도시별 인정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것으로 복수의 도시에서 개최된 행사의 경우 각각의 도시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UIA 발간 보고서 내에 기재된 국가별 인정 건수와는 상이함

나. 대륙별 현황

-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 미주권 국가의 국제회의 인정 건수가 타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
- 아시아는 일본(369건), 유럽은 벨기에(523건), 미주는 미국(657건), 오세아니아는 호주(219건),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공화국(77건)이 각 대륙에서 국제회의 인정 건수가 가장 높은 특징

<표 2-2> 대륙별 현황

[각 대륙별 상위 5, 단위 : 건]

대륙	국가	순위	인정 건수
아시아	일본	1	369
	한국	2	343
	UAE	3	156
	중국	4	131
	말레이시아	5	125
유럽	벨기에	1	523
	이탈리아	2	452
	스페인	3	451
	오스트리아	4	312
	영국	5	311
미주	미국	1	657
	브라질	2	232
	캐나다	3	206
	멕시코	4	58
	콜롬비아	5	39
오세아니아	호주	1	219
	뉴질랜드	2	37
	피지	3	8
	통가	4	3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쿡아일랜드, 괌, 바누아투, 니우에	5	1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1	77
	케냐	2	44
	모로코	3	34
	우간다	4	25
	이집트	5	23

다. 국가별 현황

-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657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벨기에(523건, 세계 2위), 이탈리아(452건, 세계 3위), 스페인(451건, 세계 4위), 일본(369건, 세계 5위) 등의 순
- 상위 10개 국가 중 아시아권은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고, 이외는 전반적으로 유럽/미주 등 서양권 국가가 높은 특징
- 한국은 세계 6위를 달성하며 전년 대비(세계 4위) 2계단 하락

<표 2-3> 국가별 전체 현황

[상위 10, 단위 : 건]

순위	국가	인정 건수
1	미국	657
2	벨기에	523
3	이탈리아	452
4	스페인	451
5	일본	369
6	한국	343
7	오스트리아	312
8	영국	311
9	독일	309
10	프랑스	295

- 연도별 분석 결과, 상위 10개 국가 중 증가율은 이탈리아(▲44.9%), 감소율은 벨기에(▼26.2%)가 가장 높은 특징
- 한국은 2023년에 인정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그 반동으로 다소 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0개국 중 6위의 순위를 유지하며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반등 하기 위해서는 인정 건수 감소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

<표 2-4> 국가별*연도별 현황

[상위 10, 단위 : 건, %]

순위	국가	2024		2023		2022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1	미국	657	▲3.8	633	▲8.6	583	▲13.9
2	벨기에	523	▼26.2	709	▲9.4	648	▲68.3
3	이탈리아	452	▲44.9	312	▲17.7	265	▲50.6
4	스페인	451	▲14.2	395	▼14.5	462	▲165.5
5	일본	369	▼25.2	493	▲23.6	399	▼2.2
6	한국	343	▼18.9	423	▲29.8	326	▼31.1
7	오스트리아	312	▼15.0	367	▲15.8	317	▲39.0
8	영국	311	▼3.4	322	▼2.1	329	▲41.8
9	독일	309	▲8.4	285	▲7.5	265	▲18.8
10	프랑스	295	▼6.1	314	▼9.8	348	▲27.5

라. 도시별 현황

- 도시별로 살펴보면, 벨기에의 브뤼셀(388건, 세계 1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239건, 세계 2위), 한국의 서울(180건, 세계 3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159건, 세계 4위), 일본의 도쿄(148건, 세계 5위) 등의 순

<표 2-5> 도시별 전체 현황

[상위 10, 단위 : 건]

순위	국가	도시	인정 건수
1	벨기에	브뤼셀	388
2	오스트리아	비엔나	239
3	한국	서울	180
4	스페인	바르셀로나	159
5	일본	도쿄	148
6	이탈리아	로마	142
7	포르투갈	리스본	140
8	스페인	마드리드	113
9	프랑스	파리	110
10	UAE	두바이	109

- 상위 10개 도시 중 이탈리아의 로마(▲89.3%)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38.3%)만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이외 도시는 모두 감소한 특징
- 특히, 포르투갈의 리스본(▼52.4%), 벨기에의 브뤼셀(▼37.4%), 일본의 도쿄(▼34.5%) 등 도시가 30% 이상 감소세를 보인 특징

<표 2-6> 도시별*연도별 현황

[상위 10, 단위 : 건, %]

순위	국가	도시	2024		2023		2022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1	벨기에	브뤼셀	388	▼37.4	620	▲8.8	570	▲78.7
2	오스트리아	비엔나	239	▼19.8	298	▲16.9	255	▲30.8
3	한국	서울	180	▼10.0	200	▲47.1	136	▼48.7
4	스페인	바르셀로나	159	▲38.3	115	▼21.8	147	▲119.4
5	일본	도쿄	148	▼34.5	226	▲12.4	201	▼22.1
6	이탈리아	로마	142	▲89.3	75	▲70.5	44	▼13.7
7	포르투갈	리스본	140	▼52.4	294	▼12.5	336	▲257.4
9	스페인	마드리드	113	▼2.6	116	▼24.7	154	▲316.2
8	프랑스	파리	110	▼11.3	124	▼4.6	130	▼15.0
10	UAE	두바이	109	▼4.4	114	▲56.2	73	▲9.0

2. 아시아 개최 현황

가. 국가별 현황

- 아시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369건, 아시아 1위), 한국(343건, 아시아 2위), UAE(156건, 아시아 3위), 중국(131건, 아시아 4위), 말레이시아(125건, 아시아 5위) 등의 순
- 2024년 아시아권에서 인정된 국제회의는 전반적으로 일본 및 한국에 집중된 경향

<표 2-7> 아시아 국가별 현황

[상위 10, 단위 : 건]

순위	국가	인정 건수
1	일본	369
2	한국	343
3	아랍에미리트	156
4	중국	131
5	말레이시아	125
6	태국	88
7	인도	77
8	싱가포르	61
9	인도네시아	56
10	대만	51
10	홍콩	51

- 연도별 분석 결과, 상위 10개 아시아 국가 중 증가율은 홍콩(▲88.9%), 감소율은 태국(▼45.0%)이 가장 높은 특징
- 한국(▼18.9%)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년대 동일하게 아시아 순위 2위를 유지

<표 2-8> 아시아 국가별*연도별 현황

[상위 10, 단위 : 건, %]

순위	국가	2024		2023		2022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1	일본	369	▼25.2	493	▲23.6	399	▼2.2
2	한국	343	▼18.9	423	▲29.8	326	▼31.1
3	아랍에미리트	156	▼24.3	206	▲56.1	132	▲65.0
4	중국	131	▲31.0	100	▲29.9	77	▲4.1
5	말레이시아	125	▲33.0	94	▼5.1	99	▲120.0
6	태국	88	▼45.0	160	▲77.8	90	▲45.2
7	인도	77	▼14.4	90	▲69.8	53	▲43.2
8	싱가포르	61	▼32.2	90	▼56.7	208	▲55.2
9	인도네시아	56	▼13.8	65	▲109.7	31	▲6.9
10	대만	51	▲6.3	48	▼5.9	51	▲50.0
10	홍콩	51	▲88.9	27	▲8.0	25	▲56.3

나. 도시별 현황

- 아시아 도시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서울(180건, 아시아 1위), 일본의 도쿄(148건, 아시아 2위), UAE의 두바이(109건, 아시아 3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71건, 아시아 4위), 태국의 방콕(65건, 아시아 5위) 등의 순

<표 2-9> 아시아 도시별 현황

[상위 10, 단위 : 건]

순위	국가	도시	인정 건수
1	한국	서울	180
2	일본	도쿄	148
3	UAE	두바이	109
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71
5	태국	방콕	65
6	싱가포르	싱가포르	61
7	홍콩	홍콩	49
8	UAE	아부다비	44
8	한국	부산	44
10	일본	교토	34

- 상위 10개 도시 중 홍콩(▲122.7%)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44.9%), 한국의 부산(▲2.3%)만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이외 도시는 모두 감소한 특징
- 특히, UAE의 아부다비(▼48.2%), 태국의 방콕(▼40.4%), 일본의 도쿄(▼34.5%) 등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세를 보인 특징

<표 2-10> 아시아 도시별*연도별 현황

[상위 10, 단위 : 건, %]

순위	국가	도시	2024		2023		2022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1	한국	서울	180	▼10.0	200	▲47.1	136	▼48.7
2	일본	도쿄	148	▼34.5	226	▲12.4	201	▼22.1
3	UAE	두바이	109	▼4.4	114	▲56.2	73	▲9.0
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71	▲44.9	49	▼16.9	59	▲126.9
5	태국	방콕	65	▼40.4	109	▲84.7	59	▲25.5
6	싱가포르	싱가포르	61	▼32.2	90	▼56.7	208	▲55.2
7	홍콩	홍콩	49	▲122.7	22	▲10.0	20	▲100.0
8	UAE	아부다비	44	▼48.2	85	▲46.6	58	▲346.2
8	한국	부산	44	▲2.3	43	▲30.3	33	▼25.0
10	일본	교토	34	▼15.0	40	▲25.0	32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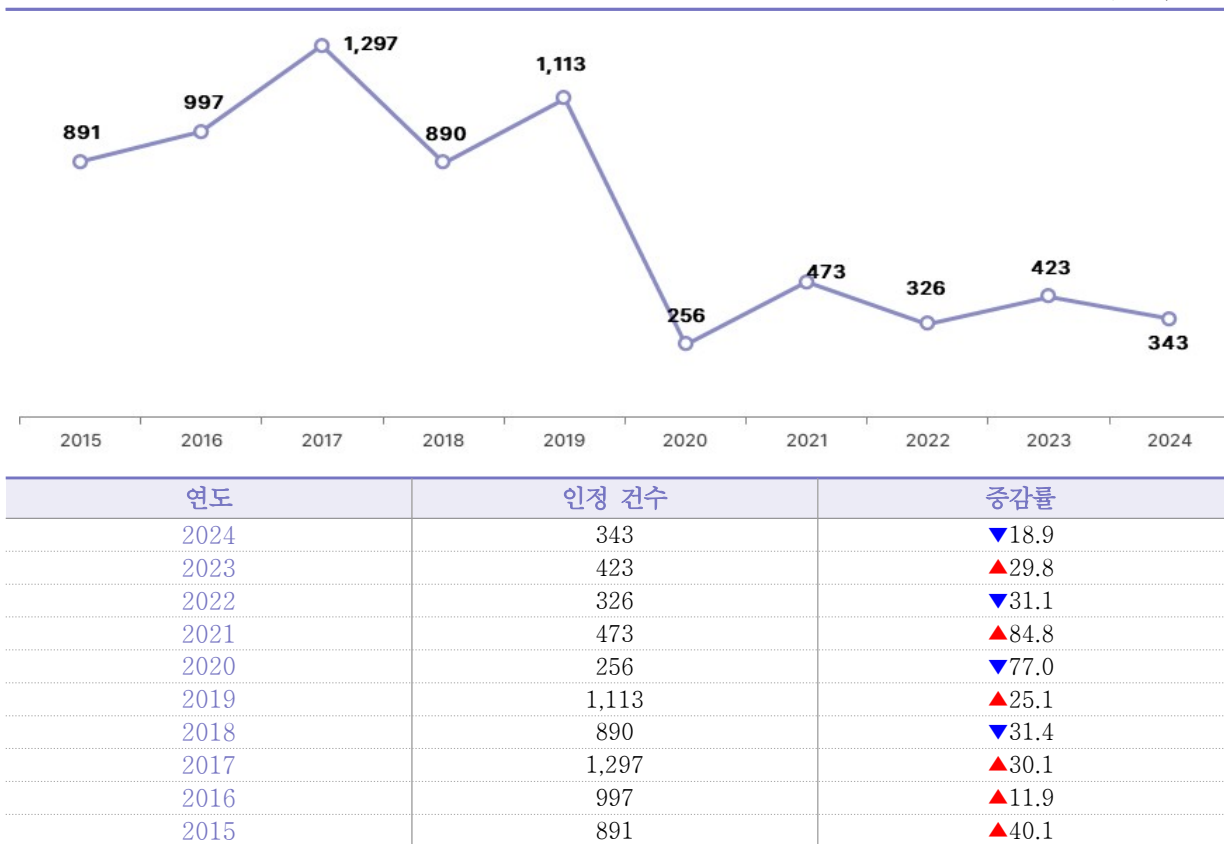
3. 한국 개최 현황

가. 전체 현황

- 2024년 한국의 국제회의 인정 건수는 343건으로 전년 대비 80건(▼18.9%) 감소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113건) 대비 6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UIA 인정 국제회의 수요는 약 31% 가량 회복된 것으로 해석

<표 2-11> 한국 전체 현황

[단위 : 건, %]



나. 지역별 현황

- 국내 광역(17개)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80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부산(44건, 2위), 인천(32건, 3위), 제주(30건, 4위) 등의 순
- 부산, 강원, 충북을 제외한 이외 지역에서는 인정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인정 국제회의의 약 53% 가량은 서울에 집중된 경향

<표 2-12> 한국 도시 및 지역별 현황

[단위 : 건]

순위	도시	2024		2023
		인정 건수	증감율	인정 건수
1	서울	180	▼10.0	200
2	부산	44	▲2.3	43
3	인천	32	▼11.1	36
4	제주	30	▼36.2	47
5	경기	13	—	13
6	대구	12	▼47.8	23
7	강원	7	▲16.7	6
8	경북	5	▼68.8	16
9	대전	4	▼69.2	13
9	광주	4	—	4
9	충북	4	▲300.0	1
12	전북	3	▼50.0	6
13	울산	2	▼33.3	3
14	전남	1	▼85.7	7
14	충남	1	—	1
14	경남	1	—	—
—	세종	—	—	3
—	무응답	—	—	1
전체		343	-18.9	423

III

ICCA 기준 개최 현황

2024년 국제회의 개최실적 조사

1. 세계 개최 현황
2. 아시아 개최 현황
3. 한국 개최 현황

제 III 장

ICCA 기준 개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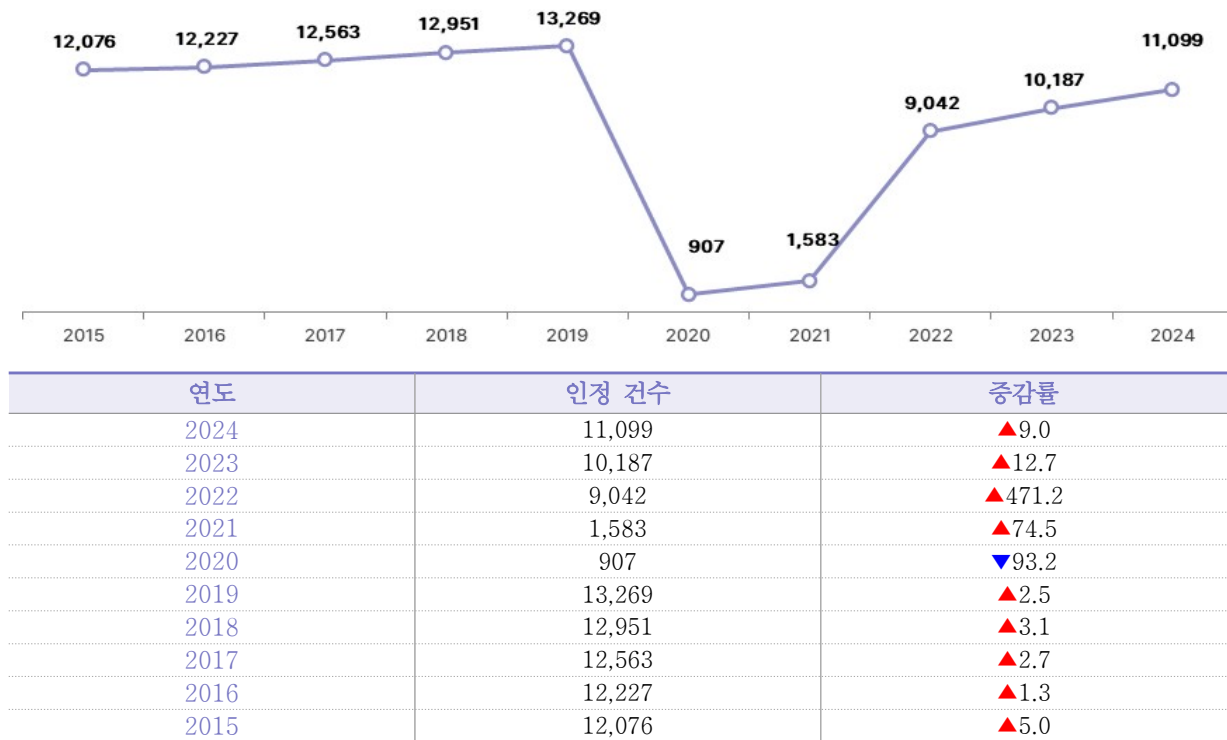
1. 세계 개최 현황

가. 전체

- 2024년 전 세계 국제회의의 인정 건수는 11,099건으로, 전년 대비 912건(▲9.0%) 증가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170건(▼16.4%) 감소한 수치이며, 2021년 이후 국제회의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표 3-1> 전체 현황

[단위 : 건, %]



※ 연도별 인정 건수는 당해연도 ICCA 발간 보고서의 국가별 인정 건수의 합임

※ 2020-2022 인정 건수는 온라인을 제외한 오프라인, 하이브리드의 합임

나. 대륙별 현황

1) 전체 현황

- 2024년 인정 건수 중 과반인 55.6%는 유럽(6,172건)에서 개최되었고, 다음으로 아시아(2,041건, 18.4%), 북아메리카(1,111건, 10.0%) 등의 순
- 참가자 수 역시 유럽(2,356천 명, 51.9%)이 전 세계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아시아(886천 명, 19.5%), 북아메리카(524천 명, 11.5%) 등의 순

<표 3-2> 대륙별 전체 현황

[단위 : 건, 천 명]

구분	인정 건수	참가자 수
아시아	2,041	886
유럽	6,172	2,356
북 아메리카	1,111	524
라틴 아메리카	903	349
오세아니아	283	132
중동	209	128
아프리카	380	166
전체	11,099	4,541

※ 참가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은 전체와 상이함

2) 연도별 현황

- 연도별*대륙별 인정 건수 분석 결과, 모든 대륙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동(▲25.1%), 아시아(▲15.9%), 라틴 아메리카(▲15.3%), 유럽(▲7.6%)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특징

<표 3-3> 연도별·대륙별 현황(인정 건수)

[단위 : 건, %]

구분	2024		2023		2022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아시아	2041	▲15.9	1761	▲62.9	1081	▲252.1
유럽	6,172	▲7.6	5,735	▲1.0	5,676	▲496.8
북 아메리카	1,111	▲1.9	1090	▲1.8	1071	▲777.9
라틴 아메리카	903	▲15.3	783	▲18.1	663	▲772.4
오세아니아	283	▲1.1	280	▲90.5	147	▲600.0
중동	209	▲25.1	167	▲36.9	122	▲165.2
아프리카	380	▲2.4	371	▲43.8	258	▲377.8

※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참가자 수는 중동(▲39.1%), 아시아(▲13.9%), 유럽(▲4.4%), 라틴 아메리카(▲3.3%)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오세아니아(▼14.8%), 아프리카(▼4.6%), 북 아메리카(▼0.4%)는 감소세를 보인 특징

<표 3-4> 연도별·대륙별 현황(참가자 수)

[단위 : 천 명, %]

구분	2024		2023		2022	
	참가자 수	증감률	참가자 수	증감률	참가자 수	증감률
아시아	886	▲13.9	778	▲48.6	524	▲330.3
유럽	2,356	▲4.4	2,256	▲4.5	2,159	▲508.1
북 아메리카	524	▼0.4	526	▼4.1	548	▲720.4
라틴 아메리카	349	▲3.3	338	▲26.7	267	▲577.8
오세아니아	132	▼14.8	155	▲133.5	66	▲568.8
중동	128	▲39.1	92	▲7.1	86	▲151.7
아프리카	166	▼4.6	174	▲100.4	87	▲361.1

※ 참가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참가자 수 증감률은 명 단위의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로, 현재 표에 표시된 천 명 단위의 증감률 계산과 차이가 있음

※ 참가자 수가 동일한 경우 표기는 동일하나 소수점에서 차이가 있음

다. 국가별 현황

1) 전체 현황

- 국가별 개최건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709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이탈리아(635건, 세계 2위), 스페인(536건, 세계 3위), 독일(491건, 세계 4위), 영국(481건, 세계 5위) 등 서구권 국가가 높은 특징
- 참가자수는 미국이 354천 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스페인(322천 명, 세계 2위), 이탈리아(263천 명, 세계 3위), 영국(207천 명, 세계 4위), 독일(179천 명, 세계 5위) 등의 순
- 한국은 인정 건수 기준으로 세계 12위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세계 11위) 1단계 하락했으며, 참가자 수 기준으로는 세계 10위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세계 13위) 대비 3단계 상승

<표 3-5> 국가별 전체 현황

[상위 10 단위 : 건, 천 명]

인정 건수			참가자 수		
순위	국가	인정 건수	순위	국가	참가자 수
1	미국	709	1	미국	354
2	이탈리아	635	2	스페인	322
3	스페인	536	3	이탈리아	263
4	독일	491	4	영국	207
5	영국	481	5	독일	179
6	프랑스	432	6	프랑스	167
7	일본	428	7	일본	134
8	네덜란드	295	8	포르투갈	131
9	포르투갈	290	9	네덜란드	129
10	캐나다	252	10	한국	122
12	한국	243	11	오스트리아	121

※ 참가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은 전체와 상이함

※ 참가자 수가 동일한 경우 표기는 동일하나 소수점에서 차이가 있음

2) 연도별 현황

- 연도별*국가별 인정 건수 분석 결과, 일본(▲17.9%), 이탈리아(▲14.8%), 영국(▲13.2%)이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높은 특징
- 한편, 프랑스(▼8.5%), 포르투갈(▼4.3%), 한국(▼3.6%) 등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표 3-6> 연도별*국가별 현황(인정 건수)

[상위 10, 단위 : 건, %]

순위	국가	2024		2023		2022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1	미국	709	▲2.8	690	—	690	▲702.3
2	이탈리아	635	▲14.8	553	▲5.9	522	▲715.6
3	스페인	536	▲6.1	505	▼4.4	528	▲486.7
4	독일	491	▲6.0	463	▼4.3	484	▲563.0
5	영국	481	▲13.2	425	▼5.3	449	▲995.1
6	프랑스	432	▼8.5	472	—	472	▲505.1
7	일본	428	▲17.9	363	▲59.2	228	▲256.3
8	네덜란드	295	▼3.0	304	▲20.2	253	▲716.1
9	포르투갈	290	▼4.3	303	▲3.1	294	▲390.0
10	캐나다	252	▼2.7	259	▲11.2	233	▲1270.6
12	한국	243	▼3.6	252	▲55.6	162	▲165.6

※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참가자 수는 상위 10개국 대부분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영국(▲27.5%), 스페인(▲27.3%), 포르투갈(▲26.0%)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
- 한편, 독일(▼19.6%), 네덜란드(▼16.3%), 프랑스(▼12.6%)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

<표 3-7> 연도별·국가별 현황(참가자 수)

[상위 10,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2024		2023		2022	
		참가자 수	증감률	참가자 수	증감률	참가자 수	증감률
1	미국	354	▲8.8	323	▼8.4	353	▲558.7
2	스페인	322	▲27.3	234	▼19.3	290	▲610.3
3	이탈리아	263	▲3.8	253	▲24.1	204	▲891.7
4	영국	207	▲27.5	150	▼11.6	170	▲769.0
5	독일	179	▼19.6	214	▲34.3	159	▲241.6
6	프랑스	167	▼12.6	188	▼15.3	222	▲746.4
7	일본	134	▲8.2	123	▲28.5	88	▲76.1
8	포르투갈	131	▲26.0	97	▼28.9	125	▲82.4
9	네덜란드	129	▼16.3	150	▲20.6	124	▲636.5
10	한국	122	▲9.8	110	▼21.5	140	▲553.9

- ※ 참가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참가자 수 증감률은 명 단위의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로, 현재 표에 표시된 천 명 단위의 증감률 계산과 차이가 있음
- ※ 참가자 수가 동일한 경우 표기는 동일하나 소수점에서 차이가 있음

라. 도시별 현황

1) 전체 현황

- 도시별 인정 건수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가 154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포르투갈의 리스본(153건, 세계 2위), 싱가포르(144건, 세계 3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142건, 세계 4위), 체코의 프라하(131건, 세계 5위) 등의 순임
- 참가자 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126천 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102천 명, 세계 2위), 싱가포르(93천 명, 세계 3위), 포르투갈의 리스본(83천 명, 세계 4위), 로마의 밀라노(80천 명, 세계 5위) 등의 순임

<표 3-8> 도시별 전체 현황

[상위 10, 단위 : 건, 천 명]

인정 건수				참가자 수			
순위	국가	도시	인정 건수	순위	국가	도시	참가자 수
1	오스트리아	비엔나	154	1	스페인	바르셀로나	126
2	포르투갈	리스본	153	2	오스트리아	비엔나	102
3	싱가포르	싱가포르	144	3	싱가포르	싱가포르	93
4	스페인	바르셀로나	142	4	포르투갈	리스본	83
5	체코	프라하	131	5	이탈리아	밀라노	80
6	프랑스	파리	124	6	영국	런던	79
6	한국	서울	124	7	스페인	마드리드	74
8	태국	방콕	115	8	태국	방콕	65
9	이탈리아	로마	114	9	한국	서울	59
10	그리스	아테네	111	10	이탈리아	로마	58

※ 참가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은 전체와 상이함

※ 참가자 수가 동일한 경우 표기는 동일하나 소수점에서 차이가 있음

2) 연도별 현황

- 연도별*도시별 인정 건수 분석 결과, 태국의 방콕(▲30.7%), 그리스의 아테네(▲26.1%), 한국의 서울(▲20.4%)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높은 특징
- 한편, 감소율은 프랑스의 파리(▼20.5%)가 상위 10개 도시 중 가장 높은 특징

<표 3-9> 연도별*도시별 현황(인정 건수)

[상위 10, 단위 : 건, %]

순위	국가	도시	2024		2023		2022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1	오스트리아	비엔나	154	▲9.2	141	▼13.0	162	▲422.6
2	포르투갈	리스본	153	▲1.3	151	▲4.9	144	▲350.0
3	싱가포르	싱가포르	144	▼5.3	152	▲50.5	101	▲431.6
4	스페인	바르셀로나	142	▲2.2	139	▲4.5	133	▲504.5
5	체코	프라하	131	▼2.2	134	▲3.9	129	▲658.8
6	프랑스	파리	124	▼20.5	156	▲16.4	134	▲605.3
6	한국	서울	124	▲20.4	103	▲56.1	66	▲312.5
8	태국	방콕	115	▲30.7	88	▲76.0	50	▲1150.0
9	이탈리아	로마	114	▼4.2	119	▲50.6	79	▲393.8
10	그리스	아테네	111	▲26.1	88	▼19.3	109	▲319.2

※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참가자 수는 상위 10개 대부분의 도시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영국의 런던(▲116.3%)의 증가율은 100%를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
- 한편, 이탈리아의 밀라노(▼12.4%), 오스트리아의 비엔나(▼7.3%), 이탈리아의 로마(▼1.7%)는 감소세

<표 3-10> 연도별*도시별 현황(참가자 수)

[상위 10, 단위 : 천 명, %]

순위	도시	2024	2023		2022		2022	
			참가자 수	증감률	참가자 수	증감률	참가자 수	증감률
1	스페인	바르셀로나	126	▲63.4	77	▼42.8	135	▲744.0
2	오스트리아	비엔나	102	▼7.3	110	▲4.8	105	▲590.8
3	싱가포르	싱가포르	93	▲4.0	89	▲73.2	52	▲558.7
4	포르투갈	리스본	83	▲43.8	57	▼35.2	88	▲576.9
5	이탈리아	밀라노	80	▼12.4	92	▲17.5	78	▲4809.9
6	영국	런던	79	▲116.3	37	▼49.3	73	▲942.9
7	스페인	마드리드	74	▲2.6	72	▲21.6	59	▲235.3
8	태국	방콕	65	▲36.8	48	▲108.7	23	▲2200.0
9	한국	서울	59	▲17.6	50	▲3.0	49	▲681.9
10	이탈리아	로마	58	▼1.7	59	▲135.4	25	▲266.6

※ 참가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참가자 수 증감률은 명 단위의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로, 현재 표에 표시된 천 명 단위의 증감률 계산과 차이가 있음

※ 참가자 수가 동일한 경우 표기는 동일하나 소수점에서 차이가 있음

2. 아시아 개최 현황

가. 국가별 현황

1) 전체 현황

- 아시아 지역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428건으로 아시아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중국(249건, 아시아 2위), 한국(243건, 아시아 3위), 태국(158건, 아시아 4위), 싱가포르(144건, 아시아 5위) 등의 순
- 참가자 수는 일본이 134천 명으로 아시아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한국(122천 명, 아시아 2위), 중국(100천 명, 아시아 3위), 싱가포르(93천 명, 아시아 4위), 태국(84천 명, 아시아 5위) 등의 순

<표 3-11> 국가별 전체 현황

[상위 10, 단위 : 건, 천 명]

인정 건수			참가자 수		
순위	국가	인정 건수	순위	국가	참가자 수
1	일본	428	1	일본	134
2	중국	249	2	한국	122
3	한국	243	3	중국	100
4	태국	158	4	싱가포르	93
5	싱가포르	144	5	태국	84
6	인도	141	6	말레이시아	67
7	대만	133	7	인도네시아	60
8	말레이시아	129	8	대만	58
9	인도네시아	98	9	인도	54
10	홍콩	86	10	홍콩	39

※ 참가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은 전체와 상이함

※ 참가자 수가 동일한 경우 표기는 동일하나 소수점에서 차이가 있음

2) 연도별 현황

- 연도별*국가별 인정 건수 분석 결과, 상위 10개 국가 대부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홍콩(▲68.6%)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
- 한편, 아시아 상위 10개 국가 중 싱가포르(▼5.3%)와 한국(▼3.6%)은 감소세를 보임

<표 3-12> 연도별*국가별 현황(인정 건수)

[상위 10, 단위 : 건, %]

순위	국가	2024		2023		2022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1	일본	428	▲17.9	363	▲59.2	228	▲256.3
2	중국	249	▲46.5	170	▲56.0	109	▲31.3
3	한국	243	▼3.6	252	▲55.6	162	▲165.6
4	태국	158	▲10.5	143	▲76.5	81	▲1520.0
5	싱가포르	144	▼5.3	152	▲50.5	101	▲431.6
6	인도	141	▲14.6	123	▲80.9	68	▲580.0
7	대만	133	▲25.5	106	▲17.8	90	▲291.3
8	말레이시아	129	▲24.0	104	▲50.7	69	▲2200.0
9	인도네시아	98	▲44.1	68	▲58.1	43	▲514.3
10	홍콩	86	▲68.6	51	▲240	15	▲87.5

※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상위 10개 국가의 참가자 수는 역시 대부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91.7%)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
- 한편, 아시아 상위 10개 국가 중 인도(▼6.5%)는 감소세를 보임

<표 3-13> 연도별*국가별 현황(참가자 수)

[상위 10,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2024		2023		2022	
		참가자 수	증감률	참가자 수	증감률	참가자 수	증감률
1	일본	134	▲8.9	123	▲40.3	88	▲317.4
2	한국	122	▲10.9	110	▼21.6	140	▲553.9
3	중국	100	▲22.9	81	▲107.5	39	▲24.6
4	싱가포르	93	▲4.0	89	▲73.2	52	▲558.7
5	태국	84	▲30.7	64	▲83.3	35	▲1642.1
6	말레이시아	67	▲47.3	45	▲47.1	31	▲4845.7
7	인도네시아	60	▲91.7	31	▲32.1	24	▲744.3
8	대만	58	▲24.3	46	▲37.0	34	▲242.6
9	인도	54	▼6.5	58	▲70.5	34	▲536.1
10	홍콩	39	▲57.0	25	▲400.0	5	▼16.7

※ 참가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참가자 수 증감률은 명 단위의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로, 현재 표에 표시된 천 명 단위의 증감률 계산과 차이가 있음

※ 참가자 수가 동일한 경우 표기는 동일하나 소수점에서 차이가 있음

나. 도시별 현황

1) 전체 현황

- 도시별로 살펴보면, 싱가포르가 144건으로 아시아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한국의 서울(124건, 아시아 2위), 태국의 방콕(115건, 아시아 3위), 일본의 도쿄(97건, 아시아 4위), 홍콩(86건, 아시아 5위) 등의 순
- 참가자 수는 싱가포르가 93천 명으로 아시아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태국의 방콕(65천 명, 아시아 2위), 한국의 서울(59천 명, 아시아 3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49천 명, 아시아 4위), 인도네시아의 발리(43천명, 5위) 등의 순

<표 3-14> 도시별 전체 현황

[상위 10, 단위 : 건, 천 명]

인정 건수				참가자 수			
순위	국가	도시	인정 건수	순위	국가	도시	참가자 수
1	싱가포르	싱가포르	144	1	싱가포르	싱가포르	93
2	한국	서울	124	2	태국	방콕	65
3	태국	방콕	115	3	한국	서울	59
4	일본	도쿄	97	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49
5	홍콩	홍콩	86	5	인도네시아	발리	43
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78	6	홍콩	홍콩	39
6	대만	타이베이	78	7	대만	타이베이	36
8	인도네시아	발리	54	8	일본	도쿄	34
9	일본	교토	49	9	중국	베이징	19
10	인도	뉴델리	39	10	일본	교토	18

※ 참가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은 전체와 상이함

※ 참가자 수가 동일한 경우 표기는 동일하나 소수점에서 차이가 있음

2) 연도별 현황

- 연도별*도시별 인정 건수 분석 결과, 아시아 상위 10개 도시 대부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뉴델리(▲129.4%)의 증가율은 100% 이상을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
- 한편, 싱가포르(▼5.3%)는 감소세를 보임

<표 3-15> 연도별*도시별 현황(인정 건수)

[상위 10, 단위 : 건, %]

순위	국가	도시	2024		2023		2022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1	싱가포르	싱가포르	144	▼5.3	152	▲50.5	101	▲431.6
2	한국	서울	124	▲20.4	103	▲56.1	66	▲312.5
3	태국	방콕	115	▲30.7	88	▲76.0	50	▲1150.0
4	일본	도쿄	97	▲6.6	91	▲133.3	39	▲333.3
5	홍콩	홍콩	86	▲68.6	51	▲240	15	▲87.5
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78	▲50.0	52	▲48.6	35	▲1650.0
6	대만	타이베이	78	▲14.7	68	▲23.6	55	▲323.1
8	인도네시아	발리	54	▲63.6	33	▲37.5	24	▲1100.0
9	일본	교토	49	▲19.5	41	▲41.4	29	▲222.2
10	인도	뉴델리	39	▲129.4	17	▼15.0	20	▲900.0

※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참가자 수는 아시아 상위 10개의 모든 국가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의 발리(▲212.2%),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125.4%)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

<표 3-16> 연도별*도시별 현황(참가자 수)

[상위 10,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도시	2024		2023		2022	
			참가자 수	증감률	참가자 수	증감률	참가자 수	증감률
1	싱가포르	싱가포르	93	▲4.0	89	▲73.2	52	▲558.7
2	태국	방콕	65	▲36.8	48	▲105.9	23	▲1618.8
3	한국	서울	59	▲17.6	50	▲3.0	49	▲681.9
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49	▲125.4	22	▲40.0	15	▲3324.0
5	인도네시아	발리	43	▲212.2	14	—	14	▲1300.0
6	홍콩	홍콩	39	▲57.0	25	▲389.1	5	▼15.9
7	대만	타이베이	36	▲7.2	34	▲34.8	25	▲256.8
8	일본	도쿄	34	▲0.2	34	▲202.9	11	▲101.5
9	중국	베이징	19	▲88.0	10	▲11.1	9	▲125.0
10	일본	교토	18	▲0.5	18	▼20.3	23	▲963.0

※ 참가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참가자 수 증감률은 명 단위의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로, 현재 표에 표시된 천 명 단위의 증감률 계산과 차이가 있음

※ 참가자 수가 동일한 경우 표기는 동일하나 소수점에서 차이가 있음

3. 한국 개최 현황

가. 전체

1) 전체 현황

- 2024년 한국의 ICCA 인정 건수는 243건으로 전년 대비 9건(▼3.6%) 감소

<표 3-17> 전체 현황

[단위 : 건, %]



※ “-”은 수치가 없거나 구할 수 없음을 의미, “0”, “0.0”은 수치가 있으나 소수점 첫째 또는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인해 0 또는 0.0으로 표기

2) 연도별 현황

- 국내 도시별 분석 결과, 서울(124건)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28건), 제주(26건), 대전(13건) 등의 순

<표 3-18> 연도별 현황(인정 건수)

[상위 10, 단위 : 건, %]

순위	도시	2024		2023		2022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인정 건수	증감률
1	서울	124	▲20.4	103	▲56.1	66	▲312.5
2	부산	28	▲12.0	25	▲47.1	17	▲183.3
3	제주	26	▼16.1	31	▲14.8	27	▲28.6
4	대전	13	▼27.8	18	▲125.0	8	▲300.0
4	인천	13	▼27.8	18	▲200.0	6	—
6	대구	9	▼59.1	22	▲100.0	11	▲120.0
7	경북	8	—	8	▼20.0	10	▲150.0
8	경기	7	▼46.2	13	▲85.7	7	▲250.0
9	강원	4	▲100.0	2	—	2	—
9	충청	4	—	—	—	1	—
11	충북	3	—	—	—	—	—
12	광주	2	▼33.3	3	▲200.0	1	▼50.0
13	전북	1	▼66.7	3	▲200.0	1	—
—	무응답	1	—	—	—	—	—

※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1개 행사가 2개 이상의 도시에서 개최될 경우 한국 전체에서는 1개 행사로 인정되지만, 도시별로는 각각 인정됨

※ “—”은 수치가 없거나 구할 수 없음을 의미, “0”, “0.0”은 수치가 있으나 소수점 첫째 또는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인해 0 또는 0.0으로 표기

- 참가자 수는 인정 건수와 마찬가지로 서울이 59천 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 부산(16천 명), 제주(13천 명), 대구(9천 명) 등의 순

<표 3-19> 연도별 현황(참가자 수)

[상위 10, 단위 : 천 명, %]

순위	도시	2024		2023		2022	
		참가자 수	증감률	참가자 수	증감률	참가자 수	증감률
1	서울	59	▲17.6	50	▲3.00	49	▲681.9
2	부산	16	▲33.9	12	▲12.3	11	▲350.2
3	제주	13	▼21.3	17	▼58.0	40	▲452.1
4	대구	9	▼4.7	10	▼2.3	10	▲415.4
5	인천	5	▼24.4	7	▲116.5	3	—
5	대전	5	▲6.6	5	▲12.9	4	▲1654.2
7	강원	4	▲588.5	1	—	—	—
8	광주	3	▲182.5	1	▲6.2	1	▼32.9
8	경기	3	▼11.2	3	▼74.7	13	▲2392.1
10	경북	1	▼54.4	3	▼54.8	6	▲601.7
10	충청	1	—	—	—	161	—
13	충북	0	—	—	—	—	—
13	전북	0	▼89.0	1	▲386.7	—	▲183.0
—	무응답	1	—	—	—	—	—

※ 참가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참가자 수가 동일한 경우 표기는 동일하나 소수점에서 차이가 있음

※ 참가자 수 증감률은 명 단위의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로, 현재 표에 표시된 천 명 단위의 증감률 계산과 차이가 있음

※ “—”은 수치가 없거나 구할 수 없음을 의미, “0”, “0.0”은 수치가 있으나 소수점 첫째 또는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인해 0 또는 0.0으로 표기

IV

결론 및 시사점

2024년 국제회의 개최실적 조사

1. 결과 요약
2. 증감 분석

1. 결과 요약

가. 세계 시장 회복 및 규모

- 2024년 UIA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국제회의의 인정 건수는 8,859건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12,472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29% 부족하여 약 71% 수준의 회복률을 보였음. 같은 해 ICCA 기준 인정 건수는 11,099건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으며, 2019년(13,269건) 대비 16.4% 감소해 회복률은 약 83.6% 수준임. 두 지표 모두 ‘코로나19 이후 점진적 회복세’라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절대 건수 및 회복률에서는 ICCA가 UIA보다 앞서 있는 양상임. 요컨대 글로벌 시장은 회복 국면에 진입했으나, 기준 변화와 데이터 정합성 확보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존재함

나. 대륙별 트렌드

- UIA 기준으로는 유럽과 미주권이 전체 회복세를 견인하였으며, 아시아는 일본과 한국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음. ICCA 통계에서도 유럽은 전체의 55.6%(6,172건)를 차지하며 단연 높은 비중을 보였고, 아시아는 18.4%(2,041건)로 2위를 기록하며 ‘유럽 독주, 아시아 추격’ 구도를 공고히 하고 있음. 참가자 수 기준으로도 유럽이 2,356천 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아시아는 886천 명을 기록하며 수요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임. 반면 북미 및 라틴아메리카는 건수 비중은 각각 10.0%, 8.1%에 머물렀으며, 참가자 수 성장률에서는 오히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음. 종합적으로 대륙별 회복 양상은 ‘유럽 주도 성장’, ‘아시아의 가파른 추격’, ‘기타 지역의 변동성 확대’라는 복합적 특성을 보임

다. 국가별 경쟁 구도

- UIA 기준 국가별 인정 건수는 미국(657건), 벨기에(523건), 이탈리아(452건) 순이며, 한국은 343건으로 세계 6위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두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ICCA 기준에서는 미국(709건), 이탈리아(635건), 스페인(536건)이 상위권을 형성하였으며, 한국은 243건으로 세계 12위로 순위가 1계단 하락함. 특히 일본은 UIA 세계 5위, ICCA 세계 7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은 ICCA 세계 11위로 급부상하여 한국 보다 앞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말레이시아도 UIA/ICCA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며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추세임. 이 같은 수치는 한국의 경쟁국들이 국제회의의 순위를 국가 브랜드 전략의 핵심 지표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라. 한국 내 도시별 실적

- UIA 기준으로 서울은 180건으로 세계 3위이자 아시아 1위를 유지하였으나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음. 2-4위 도시 중 부산을 제외한 인천, 제주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전체 인정 건수 중 약 53%가 서울에 집중되는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된 양상을 보임. 반면 ICCA 기준으로는 서울이 124건으로 세계 공동 6위이자 아시아 2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부산(28건, ▲12.0%)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제주(26건, ▼16.1%)와 대구(9건, ▼59.1%)는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대전과 인천도 각각 13건에 그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서울의 실적은 견고한 반면 지방 도시의 실적은 정체 또는 하락세가 뚜렷하여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2. 증감분석

가. 대내적 요인

1) 지방 CVB 통합·인력 축소

- 2024년 대구컨벤션뷰로가 EXCO와 통합되었고, 2025년 1월에는 제주컨벤션뷰로가 제주관광공사와 합병되면서 지방 CVB의 조직이 축소되는 구조조정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MICE 전담 인력의 이탈과 마케팅 예산 삭감이 동시에 진행되어, 대구는 전년 대비 UIA 11건(▼47.8%), ICCA 13건(▼59.1%), 제주는 전년 대비 UIA 17건(▼36.2%), ICCA 5건(▼16.1%)의 실적 감소로 이어졌음. 특히 통합 초기에는 조직 정비와 기능 조정 과정에서 대외 활동 공백이 불가피했으며, 이는 국제회의 유치 실적에 즉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지역 CVB의 존재 자체가 해당 도시의 국제회의 유치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구조 개편은 단기적으로 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조직 안정화와 전문성 회복 없이는 지방의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마케팅 타겟의 분산과 예산 축소

- 일부 지자체는 전략적으로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보다는 축제, 골프쇼, 내수 학회 등을 주력 유치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제회의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을 보였음. A 지자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방비 매칭조차 어려울 정도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B 지자체는 특정 대형행사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결과, 국제회의 유치 활동이 지연되었음. 이러한 '멀티 타겟' 전략은 지역 MICE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국제회의 실적과 순위 제고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음. 특히 UIA 및 ICCA가 '정량적 인정 건수'를 근간으로 순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선택과 집중의 부재는 구조적으로 지방 도시 순위 하락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국가 단위 유치·지원 예산 감소

- ICCA 기준의 중대형 국제회의의 유치는 통상 3~5년 전부터의 장기적 입찰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만, 2020년 이후 국제회의 유치 관련 정부의 예산은 팬데믹 대응과 사회재난 대응 예산 등에 밀려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

이에 따라 해외 로드쇼, 마이어 초청, 국제입찰 지문 등 고비용 마케팅 활동이 대폭 축소되었고, 결과적으로 유치 파이프라인이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이 같은 흐름은 ‘예산 정체 → 마케팅 위축 → 실적 감소 → 순위 하락’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시급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나. 대외적 요인

1) 일본의 정책 강화와 실적 상승

- 일본은 2023년부터 「제4차 관광입국추진계획(2023~2025)」과 「신(新)시대 인바운드 활성화 액션 플랜」을 연계해, MICE 산업을 국가 관광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였음. 해당 계획에는 총 78개 실행과제 중 28개가 국제회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세계 5위, 아시아 1위’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 특히 지방정부-국립대학과 연계한 과학기술 및 의료 분야의 국제회의 유치 전략이 본격화되었으며, 외국인 참가자 20% 증가 목표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평가체계까지 구축하였음. 이 같은 정책 실행력은 ICCA 기준 일본의 국제회의 인정 건수를 2024년 428건으로 끌어올리며, 전년 대비 17.9% 증가와 함께 세계 순위 7위, 아시아 1위 달성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짐. 이는 한국이 국제회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 공공 지원, 정량적 데이터 관리의 삼박자 요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2) 중국 및 말레이시아의 제도 개혁과 전략 투자

- 중국은 주요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을 중심으로 국가급 대형 컨벤션센터를 확장하고, 단기 무비자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접근성을 개선하였음. 아울러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국제협회 사무소의 중국 내 개설을 허용하면서, 약 7,000개에 달하는 국제단체가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이러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편은 ICCA 기준 중국의 인정 건수를 2024년 249건(▲46.5%)까지 끌어올리며, 세계 11위라는 순위 상승으로 이어졌음. 한편 말레이시아는 ‘Meet in Malaysia’ 캠페인을 통해 소규모 학술회의부터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2021~2030년을 아우르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아시아 5대 비즈니스 행사 강국을 목표로 명확히 설정함. 두 국가 모두 정책 일관성과 장기 로드맵을 통해 국제회의 실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단기 예산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참여 연구진

과업 주관 기관

조 현 조

한국관광공사 MICE기획팀 팀장

염 재 웅

한국관광공사 MICE기획팀 주임

과업 수행 기관

최 서 우

(주)한국데이터연구소 대표이사

양 병 곤

(주)한국데이터연구소 책임연구원

박 선 민

(주)한국데이터연구소 선임연구원

양 준 희

(주)한국데이터연구소 선임연구원

김 남 연

(주)한국데이터연구소 연구원

2024년 국제회의 개최실적 조사

발 행 인

발 행 처

발 행 일

서 영 충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https://kto.visitkorea.or.kr>

2025년 07월

이 조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한국관광공사(2025), 2024년 국제회의 개최실적 조사